

# 남부지방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Paradacus) depressa* (Shiraki))의 발육특성과 분포

김지수, 김태흥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

1997-1999년 3년간 전라 남,북도와 경상남도 19개군에서 호박과실파리 [*Bactrocera (Paradacus) depressa* (Shiraki)]를 채집, 관찰하고 실험실  $24\pm 2^{\circ}\text{C}$ , 16L:8D, RH  $70\pm 5\%$  조건에서 사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호박과실파리는 7월 중순경 우화, 재배호박의 열매에 산란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우화는 이보다 20-30일 일찍 일어나고, 우화 한 암컷은 난이 성숙할 동안 자연에서 단백질을 섭취한다. 산란혼은 서류 편을 이용하여 찌른 것과 같은 흔적이 남으며 과실로부터 투명한 과액이 흐른다. 난은 박과류의 열매 안에서 부화하고 종령 유충인 3령이 과실에서 탈출, 토양 내 잠입한다. 산란시 세균이 과실 내에 함께 침입, 과실이 부패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파리의 유충 발육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양자는 공생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령 유충은 충체를 반 접은 후 튀는 특성이 있다. 용은 땅속에 들어가 겨울을 나는데 임의휴면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외에서의 용기간은 8-10개월이며 성충기는 조건에 따라 30일-90일이다. 실험실에서는 온도조건이 맞으면 우화를 하지만 야외의 환경에서는 부적절(온도, 습도 등)한 조건으로 인해 발육이 진전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시설재배 하우스 내로 침입할 경우 연중 발생의 우려가 있다. 남부지방의 과실파리는 전라 남, 북도와 경상남도 산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공원지역을 중심으로 다량발생하고 있다. 고도에 따른 분포의 차이는 없었다. 문헌에 따르면 전남의 일부 도서에도 분포하고 있다.